

## 〈가락국기〉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장례의례적 성격 고찰\*

현승환\*\* · 변숙자\*\*\*

### 〈차 례〉

1. 서론
2.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장례의례의 관련성
3. 제단(祭壇) 형성 행위로서의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4.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재생 기원적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제시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장례의례적 성격을 규명하여 ‘굴봉정찰토’와 함께 노래 불린 〈구지가〉의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적 성격을 지닌다. 〈가락국기〉는 수로의 탄생 유래담인 수로 신화이다. 신화는 의례와 함께 전승되므로, 수로 신화에 나타난 의례적 측면을 분명히 규명해야 수로 신화의 성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락국기〉에서 수로의 탄생 부분은 수로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구성된다. 수로의 탄생은 새로운 왕의 등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구간이 통치하던 당대 전임 통치자의 최후를 의미한다. 즉, 〈가락국기〉의 수로 탄생은 새로운 왕의 탄생의례와 함께 전임 통치자의 장례의례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이중적 속성이 있다. 이는 구지봉 위에 고대 통치자의 무덤인 고인돌(支石墓)이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수로의 탄생의례가 행해졌다는 상황에 근거하여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장례의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날 전승되는 민속자료를 활용하였다.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첫째, 제주도의 장례법 중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을 모아 쌓는 ‘제절(祭折)’ 풍습과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의 관련성을 살폈다. 둘째, 진도의 장례법 <다시래기>를 통해 이중장제(二重葬制)라는 고대적 장례 절차에서 행해졌던 가무의례의 전통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는 재생기원적 속성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장례의례에서 행해지는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 연행이 후손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후대까지도 전승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삼국유사』, <가락국기>, <구지가>, <수로신화>, 굴봉정촬토, 제절, <다시래기>, 장례의례

## 1. 서론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가락국을 건국한 신화적 인물인 수로의 탄생 이야기인 바, 실존인물의 신화화이다. 그 후손들은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며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로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인물이고, 어떻게 신성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이라는 인물은 천명의 지시대로 9간과 백성이 구지가를 부르며 가무를 행하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상자 속 6란에서 탄생하였다. 천명의 지시는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 ‘가지(歌之)’, ‘도무(踏舞)’의 세 가지 행위로 압축된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1) 開闢之後。此地未有邦國之號。亦無君臣之稱。越有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五天干，神鬼干等九干者。是酋長。領總百姓。凡一百戶，七萬五千人。多以自都山野。鑿井而飲。耕田而食。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

어떠한 의례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대동문화재연구원(2019)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과정에서 5세기 말경에 조성된 대가야 소형 석곽묘에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건국신화 내용이 그림으로 새겨진 토제방울 1점을 출토하였다고 밝혀 언론과 학계에 주목을 받았다.<sup>2)</sup> 배성혁은 가야고분군 조사연구보고서(2020)에서 〈그림 1〉과 같이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 표면에 선각으로 새겨진 6종 그림의 주제가 〈가락국기〉의 건국신화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가락국기〉의 건국신화가 금관가야만이 아닌 대가야를 포함한 가야 지역의 공통 건국신화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sup>3)</sup>

三月禊浴之日。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若十朋伏之狀。故云也。)有殊常聲氣呼喚。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有如人音。隱其形而發其音曰。此有人否。九干等云。吾徒在。又曰。吾所在爲何。對云龜旨也。又曰。皇天所以命我者。御是處。惟新家邦。爲君后。爲茲故降矣。你等須掘峯頂撮土。歌之云。龜何龜何。首其現也。若不現也。燔灼而喫也。以之蹈舞。則是迎大王。歡喜踴躍之也。九干等如其言。咸忻而歌舞。『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 2) 대동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는 대동문화재연구원의 토제방울 출토에 대해 가야 건국신화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가야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추정하였다.

· 대동문화재연구원 보도자료(2019. 3. 20.), ‘김수로왕 탄생 신화’ 〈구지가〉 논란 불러올 흠방울 출토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6599.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6599.html) (2020.03.29.)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9. 3. 20.),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신화 그림 6종’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5세기 후반 가야 시조 ‘난생(卵生)’ 신화 형상화, 건국신화 투영된 유물 최초 사례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6p1uOkSxP5ukFAmbjJaJdnpkuR7j0MdDVaPy0bAChkaMLwySJ0yyax1liFr1kha8.cha-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1283&sectionId=b\\_sec\\_1&pageIndex=130&mn=NS\\_01\\_02&strWhere=&strValue=&sdate=&edate=](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6p1uOkSxP5ukFAmbjJaJdnpkuR7j0MdDVaPy0bAChkaMLwySJ0yyax1liFr1kha8.cha-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1283&sectionId=b_sec_1&pageIndex=130&mn=NS_01_02&strWhere=&strValue=&sdate=&edate=) (2022.03.29.)

· JTBC 보도자료(2019.3.20.), ‘구지가’ 연상시키는 1500년 전 방울…가야의 신비 풀리나 <https://www.youtube.com/watch?v=szF4grge3BU> (2022.03.29.)

- 3) 배성혁은 가야고분군 조사연구보고서(2020)에서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 표면에



[그림 1] 토제방울에 새겨진 주제별 그림

※ 출처: 배성혁,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179쪽.

가야의 건국신화인 <가락국기>, 신화 속에 제시된 <구지가>에 관한 해석과 논의는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해석을 뒷받침할 가야의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더 나아가 우리의 유구한 문화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탐구심과 상상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글은 <구지가>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 중 하나가 될 것이나, 현존하는

선각으로 새겨진 6종 그림의 주제가 <가락국기>의 건국신화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이 둘을 비교하여 각각 ‘남근의 형상은 가야 탄생설화의 장소인 구지봉(龜旨峯), 거북의 형상은 <구지가(龜旨歌)>, 관을 쓴 남자의 형상은 구간(九干), 춤을 추는 사람의 형상은 “노래(구지가)를 부르며 뛰면서 춤을 추어라.”는 내용과, 앞드러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의 형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라는 표현과, 토제방울의 고리를 타고 내려오는 줄과 끝에 달린 자루 형상은 “하늘에서 자줏빛 줄을 타고 내려온 자루에 싸인 금합을 열어보니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는 기사와 부합된다고 추정하였다. 배성혁,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가야고분군Ⅴ-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0, 152~184쪽.

민속 자료를 바탕으로 〈구지가〉와 배경설화에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구지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구지가〉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어떠한 행위로 보는가에 따라 노동요와 주술요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다. 우선, 〈구지가〉를 노동요로 보는 견해는 조운제(1949)에서 비롯되어, 박지홍(1957), 이가원(1973), 박성익(1975), 조용호(2010) 등의 후학 연구자들로 이어졌다. 조운제(1949; 1963)는 ‘굴봉정찰토’를 ‘봉두(峯頭)의 흙을 파헤치’는 것으로 해석하고,<sup>4)</sup> ‘구간 등이 굴봉찰토(掘峯撮土)의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구하구하(龜何龜何)의 노래를 부른 것<sup>5)</sup>’으로 보아 〈구지가〉를 집단적 노동요로 해석하였다. 박지홍(1957)은 가래질, 타작질 등의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동작으로, 이가원(1973)은 농어부가 집단적으로 흙을 파는 행위로, 박성익(1975)는 노동의 괴로움을 덜기 위한 노동가로, 조용호(2010)는 밭을 가는 연극적 행위로 보았다.<sup>6)</sup> 이처럼 〈구지가〉를 노동요로 보는 견해에서는 공통적으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掘(파다)’에 주목하여 ‘집단적으로 땅을 파는 노동<sup>7)</sup>’의 행위로 해석하였다.

4) 조운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16쪽; 박재민,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행위로 본 〈구지가〉의 성격에 대한 재고」,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31쪽 재인용.

5)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97(1963년 초판 발행, 1987년 橫組新版 초판 발행), 25쪽.

6) 〈구지가〉를 노동요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지홍(1957)은 가래질 타작질을 시뮬한 농부의 동작으로, 이가원(1973)은 농어부가 흙을 파는 행위로, 박성익(1975)은 산정(山頂)을 파헤치는 노동(勞動)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부른 노동가(勞動歌)로, 조용호(2010)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일을 모방하는 연극적 행위로 보았다. 박지홍, 「龜旨歌 研究」,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15쪽; 이가원, 『朝鮮漢文學小史』, 삼화출판사, 1973, 34쪽; 박성익, 『國文學通論 國文學史』, 삼우사, 1976(1975년 초판 발행), 326쪽; 조용호, 「풍요기원 노래로서의 구지가 연구」, 『서강인문논총』 2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361쪽.

7) 박재민,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행위로 본 〈구지가〉의 성격에 대한 재고」, 『국문

그러나, 조운제(1949)와 박성의(1976)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는 노동의 행위로 보면서도, 〈구지가〉의 내용은 원시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구지가〉를 노동요와 주술요가 혼합된 양식으로 보았다. 조운제(1949)는 〈구지가〉가 노동요에서 발생하였으나 종교적 특성이 혼재된 시가로 규정하였다.<sup>8)</sup> 이러한 견해는 박성의(1975)로 이어져 산 정상을 파헤치는 ‘굴봉정찰토’의 행위는 노동의 행위로 보면서도, 구지가의 내용은 명령적, 위협적인 기원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주문(呪文)으로 보아 노동요와 주술요의 복합적 성격을 제시하였다.<sup>9)</sup> 〈구지가〉를 노동요와 주술요의 복합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연구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구지가〉를 완전히 노동요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구지가〉는 수로신화와 함께 전승되므로 의례와의 관련성을 묵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구지가〉를 주술요로 보는 견해에서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제의적 행위로 해석하고, 〈구지가〉 또한 의례에 동반된 노래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에서는 〈구지가〉가 어떠한 의례와 관련되는지를 밝혀 〈구지가〉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황패강(1965; 2006)은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거북 토템(totem) 사회의 영신제의(迎神祭儀)에서 토템인 거북의 동작과 소리를 의작(擬作)한 행위이자, ‘봉(峰, 龜峰)’은 남근, ‘굴(掘)’, ‘찰(撮)’은 성교(혹은 수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불린 〈구지가〉는 영신가(迎神歌)로 보았다.<sup>10)</sup> 김병국(2019)은 ‘산꼭대기의 흙을 모으고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전체 과정이 제의의 과정으로

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32쪽.

8) 조운제(1997), 앞의 책, 25쪽.

9) 박성의(1976), 앞의 책, 326쪽.

10) 황패강, 「龜何歌攷」, 『국어국문학』 29, 1965, 39~40쪽; 황패강, 「김수로왕신화와 구하가」,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151~152, 166쪽.

수로의 왕위 등극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구지가〉는 황천을 향해 임금을 내려달라고 비는 주술적 노래로 보았다.<sup>11)</sup> 황경숙(1994)은 〈구지가〉를 주술요가 아니라 폭력적 산상의례(山上儀禮)에서 불린 의식으로 보면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도무(踏舞)는 성역을 훼손(毀損)하는 행위’로 수로가 거북 토토편 집단인 토착민들의 구심적 신앙체계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질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구지가〉에 담겨있다고 해석하였다.<sup>12)</sup>

이와 달리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제의적 행위임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에서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해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굴봉정(掘峯頂, 산 정상)의 흙을 파다’와 ‘찰토(撮土, 흙을 모으다)’의 2개 어구로 구분하여 제의를 지내기 위해 ‘흙을 파서 모으는 행위’로 해석<sup>13)</sup>하였다. 김승찬(1975)은 탄강신의 자리인 신좌(神座)를 만드는 행위로,<sup>14)</sup> 김종우(1974), 박진태(1982), 오태권(2007)은 제의를 지내기 위해 제단을 만드는 행위로,<sup>15)</sup> 어강석(2015)은 희생물을 태우기 위한 제단 형성 행위로 보았다.<sup>16)</sup> 특히 박재민(2018)은 중국의 『서

11) 김병국, 「고대인들의 황천(皇天) 인식과 소망 성취 방식 - 〈구지가(龜旨歌)〉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0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9, 40~61쪽.

12) 황경숙의 논의는 〈구지가〉를 주술요가 아닌 폭력적 의식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술요로 보는 견해와는 차이가 있으나, 산상의례의 폭력적 성격과 구지가의 위협성을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의례와 〈구지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한 선행연구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황경숙, 「駕洛國記의 山上儀禮와 龜旨歌의 性格에 대한 小考」,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994, 30~42쪽.

13) 박재민(2018), 앞의 논문, 134쪽.

14) 김승찬, 「구지가와 그 배경의 연구」, 『문리과대학논문집』 14, 인문사회과학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75, 21~40쪽.

15)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선명문화사, 1974; 박진태, 「구지가 신연구」, 『한국어문논집』 2,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119~131쪽; 오태권, 「구지가 서사의 봉제기능(封祭機能) 연구」,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521~557쪽.

16) 어강석, 「한문학적 관점으로 본 〈구지가〉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38(1), 한국학

유기』 등의 문헌과 한국의 〈석척가(蜥蜴歌)〉 등의 용례를 바탕으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에서 ‘찰토(撮土)’가 대규모의 흙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향로를 대용할 한줌 흙더미를 모으는 행위’임을 밝혀 〈구지가〉가 노동요가 아닌 주술요에 해당함을 논의하였다.<sup>17)</sup> 〈구지가〉를 주술요로 보는 견해들에 따르면 〈구지가〉는 제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불린 의식요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구지가〉가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함께 전승되고, 신화가 의례와 함께 전승됨을 감안할 때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는 제의와의 관련성에 기반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sup>18)</sup> 그러나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제의적 행위라고 할 때, 제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행해진 의례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제단 형성 행위로 본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더 나아가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를 부르는 제의가 영신의례, 등극의례, 산상의례 등이 아닌 장례의례에서 행해지는 의례적 절차에 해당함을 밝혀 〈구지가〉의 성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즉 이 글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굴봉정찰토’와 의례의 관련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굴봉정찰토’

중앙연구원, 2015, 247~280쪽.

17) 박재민(2018), 앞의 논문, 127~144쪽.

18) 이상돈(2011)은 김수로가 인도인임을 주장하면서 구지와 배경설화에 나타난 인도 문명적 요소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掘峯頂撮土歌之’는 ‘掘峯頂(하야) 撮土(하고) 歌之(하라)’로 풀이해야 하며, 이때 ‘撮土歌之’는 인도의 국경행사에서 ‘흙을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르는 의식’과 유사한 풍습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 논의는 ‘撮土’를 제단 형성 행위로 본 기존 견해들과는 다르나, 신성한 국경제외와 관련된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또, ‘撮土’가 어떠한 연유로 국경제외와 관련된 의례적 행위로 굳혀졌는지에 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찰토(撮土)’를 제의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관점을 수용하면서 그것이 기존 통치자의 죽음과 신임 통치자의 탄생이라는 신성한 국가의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돈, 「쉽게 풀어본 龜旨歌詞의 해석」, 『인문언어』 13(1), 국제언어인문학회, 2011, 53~91쪽.



와 함께 노래 불린 〈구지가〉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9간은 수로의 탄생을 위해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행하면서 〈구지가〉를 부른다. 그러나 구지봉 위에 고대 군장의 무덤인 고인돌, 즉 지석묘(支石墓)가 있음을 전제할 때, 구지봉 정상에서 행한 고대의 제의로 수로의 탄생의례가 아닌 군장의 죽음과 관련된 장례의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대 군장의 장례법인 지석묘 장법과 그 이후에 행해진 수로왕의 장례법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가 장례의례와 관련됨을 밝히기 위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장례 풍습 중 지석묘 장법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민속현상을 찾아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고대 문화가 남아 있는 제주와 진도의 장례법을 통해 장례의례에서의 제단 형성 절차와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진도의 장례 풍속 중 〈다시래기〉를 통해 고대 장례의례에 담긴 재생기원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례의례에서 행해진 제단 형성 절차로서의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전임자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염원하는 재생 기원의 노래가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노래로 전이되는 과정에 〈구지가〉가 존재함을 밝힐 것이다.

## 2.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장례의례의 관련성

〈가락국기〉의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해명하기 위해 수로의 탄생과 관련한 〈구지가〉 배경설화의 내용구성을 분석한다. 설화는 4가지 사건으로 나뉘며 내용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구지가> 배경설화의 내용 구성

구분	<구지가> 배경설화의 내용
① 수로 탄강 이전	開闢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 鑿井而飲, 耕田而食.
② 수로 기원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浴之日. 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 若十朋伏之狀. 故云也.)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其形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你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舞蹈.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 咸忻而歌舞
③ 수로 탄강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裘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裘著,
④ 수로왕 등극	抱持而歸我刀家, 寘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蓋恭敬止. 日月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 則殷之天乙. 顏如龍焉, 則漢之高祖. 眉之八彩, 則有唐之高. 眼之重瞳則, 有虞之舞.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수로 이전의 서술인 ①은 시간적 배경으로 개벽 후이다. 공간적 배경으로는 현재 장소에 나라가 없었지만 9간과 백성이 자리 잡게 된 연유를 서술한다. 수로왕 탄생 이전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9간과 백성으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존재양상만 보여준다. 수로왕 이전의 전임 통치자가 존재하던 지석묘(支石墓) 시절의 서술이라 하겠다.

수로 기원의례가 서술된 ②의 시간적 배경은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계육지일(禊浴之日)이고, 공간적 배경은 ①과 같은 북구지(北龜旨)에서 벌어진 일이다. 태초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 의례를 행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무리 200~300인이 형상은 없이 소리만 들리는 상황 곧 신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어서 신이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예견한다. 소리가 등장하여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사람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내가 있는 현재의 장소'이다. 그곳은 신이한 존재와 신앙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제의공간으로서의 구지봉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태초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신성하다. 그래서 개벽지후(開闢之後)를 밝히며, 구지봉에 9간 등이 모여 기원의례를 행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왜 기원하는지 연유를 신에게 고하는 부분이다.<sup>19)</sup>

수로 탄강을 서술한 ③은 기원의례에 대한 응답이다. 비로소 사람들에게 천명을 전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황천이 나에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새로 열고 왕이 되라 하여 하강하였음을 밝힌다. 문맥으로 보아 9간과 백성들이 구지봉에서 새로운 왕의 탄강을 바라는 기도를 하였고, 황천은 이를 들어주기 위해 수로왕을 보내주고 있다. 즉 ③은 수로를 요청하는 기원의례의 결과로 행해진 탄생의례이다. 그러나 이때의 탄생은 인간이 아닌 난생(卵生)으로 1차 탄생에 해당한다.

수로왕 등극을 서술하는 ④에서 9간이 바라는 왕은 6란으로 하강하였다. 9간은 6란이 든 상자를 싸서 아도간집으로 가서 탑 위에 모신다. 여기서 알은 동자로 변신한다. 2차 탄생이다. 2차 탄생 이후부터는 인간이며, 그는 왕이 될 신성한 인물이 된다. 그래서 동자를 왕으로 추대하여 모두가 경배하고 보름날 즉위한다. 이 부분은 즉위의례로 보아 족하다. ④의 수로왕 등극은 수로 탄생 이후의 서술이며, 왕으로 등극할만한 이유로 수로의 외모를 들어 중국의 은나라, 당나라에 못지않은 건국주의 모습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난생화소<sup>20)</sup>를 통한 수로의 2차 탄생 과정이다. 수로의 탄생은 알로 한 번, 알을 깨고 한 번, 곧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알로 태어나는 1차 탄생으로, 이는 알을 깨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존재가 신성한 존재가 됨을 내포하는 신성모티프이다. 이때의 알은 신이 아니다. 천상에 있을 때는 신이었겠지만 일단 지상의 6란으로 하강하는 순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중적 존재로 신성성만

19) 제주도의 무속의례에서 ‘집안연유담’ 절차와 유사하다고 본다.

2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조.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042>

을 지닌 존재로 남는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2차 탄생이다. 이는 두 번 태어난다는 재생과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신성한 인물임이 강조된다. 2차 탄생, 즉 재생과 부활을 통해 탄생한 수로는 9간이 바라는 왕이 되어 앞으로 가야를 건국하고, 후손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시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연은 처음 나타나 시조가 되는 인물을 ‘수로(首露)’라 한다고 하고, 그가 죽으면 ‘수릉(首陵)’이라 한다고 주를 붙이고 있다.<sup>21)</sup>

이처럼 <구지가> 배경설화는 수로의 탄강의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탄강의례는 수로 이전 시기 통치자의 무덤인 지석묘가 있는 신성장소, 구지봉(龜旨峯)에서 행해지고 있다. 구지봉은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하나의 봉우리만을 지시하겠지만, 고대에는 구지봉 부근 전체를 포괄하는 지명이 아닌가 한다. 봉우리가 솟은 맨 꼭대기의 정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봉우리를 형성하는 아랫부분부터 심지어는 그 인근으로 연결된 산자락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구지봉은 폭이 넓어진다. 실제 구지봉과 가까운 곳에 수로왕비릉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수로왕릉이 있기 때문이다. 무덤을 썼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이다. 수로 이전 통치자의 후손들은 구지봉의 지석묘에서 조상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수로왕 후손들은 지석묘가 자리 잡은 구지봉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로왕릉을 조성하고 수로왕릉 앞에서 조상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석묘와 매우 지척인 곳에 수로왕릉이 조성되며, 수로왕릉이 있는 곳도 구지봉 자락에 해당한다.

조선 중기 학자인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에 따르면, 수로왕릉은 임진왜란 때 왜국에 의하여 도굴되었는데, 구덩이 안은 매우 넓었고 두개골은 대야만큼 컸으며, 관 바깥에 순장한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미인

21)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이 있었을 정도로 큰 무덤이었다. 게다가 그 후 조정의 인가를 얻어 왕릉을 복구하게 되었고 주변에 여러 전각들을 설치하여 보호하게 되었다.<sup>22)</sup>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로왕릉은 초창기부터 있어온 무덤이며, 후손들은 자신의 시조인 수로왕릉 앞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그런데 수로왕의 탄강의례는 전임 통치자의 죽음 이후에야 행해질 수 있는 의례이다. 〈가락국기〉의 내용은 9간이 자신들의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상의 묘인 지석묘에서 새로운 후계자를 내려달라는 기원의례를 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탄생한 인물이 바로 수로이다. ②의 수로 기원의례를 행하던 당시는 ①의 수로 이전 시기에 존재하던 전임 통치자의 죽음으로 통치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수로는 9간의 기원대로 하늘에서 하강하여 난생으로의 재생과 부활을 거친 신성한 인물로 15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 그렇다면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는 전임 통치자의 죽음과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이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행해진 의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는 〈구지가〉에 선행되어야 하는 의례적 행위로 탄생 기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즉 전임 통치자의 장례와 새로운 왕의 탄생의례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수로가 등장하기까지 9간(九干) 제도가 이어졌고, 가야 건국(AD.42년) 이전에 이미 구지봉 정상에 지석묘가 있는 것으로 보면, 죽은 왕을 장사지내고 새로운 왕을 모시는 의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특히 구간과 백성들은 계육일이라는 정해진 제일(祭日), 구지봉이라는 정해진 제장(祭場)에서 수로를 맞이하고 있으며, ‘굴봉정찰토’와 〈구지가〉를 부르는 등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야 지역에서 행해지던 토착적 제의의 모습일 수 있으며,<sup>23)</sup> 이것이 지석묘가 있는 구지봉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

22) 김태식, 「가야의 문화와 역사」, 『시안』 12(1), 시안사, 2009, 12~24쪽.

23) 김주전(1999)은 〈가락국기〉에 제시된 3월 禊浴日은 가야지역에서 토착적인 제의가

은 이전 통치자의 무덤이 있는 신성 장소에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임 통치자의 죽음을 기리는 제의와 함께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을 기원하는 의례를 이행함으로써 새로운 왕의 신성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수로왕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와 관련된 의례는 사라지는 것일까? 수로왕의 후손, 곧 2대 거등왕의 사례를 유추하여 전임 왕의 죽음과 새로운 왕의 탄생의례가 행해지는 양상을 해명해 볼 수 있다. 수로왕의 후손, 곧 2대 거등왕부터는 지석묘 후손의 장례 방식을 취할 수 없다. 수로왕을 중심한 새로운 독자적 세력의 장례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수로왕의 장례를 치르면서 거등왕의 탄생과 즉위의례가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수로의 혈통을 이어 거등왕이 태어났으니 별도의 탄생의례 없이 왕으로의 즉위의례만 행하면 된다. 하지만 하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수로왕과 대비할 때 거등왕의 즉위에서도 신성성을 부여하는 의례가 필요하다. 이는 수로왕이 하강하여 탄생하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수로왕의 탄생의례를 재현하는 것만으로 그 혈통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즉, 거등왕의 즉위의례에서도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하면서 <구지가>를 부르는 신임 왕의 탄생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본다. 수로왕이나 거등왕이나 동일한 절차를 거쳐 왕으로 등극하지만, 수로는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수로(首露)’라

---

행해지는 날로, 9간을 위시하여 백성들이 龜旨에 모여 부락공동체를 공고히 하려는 제의를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의가 수로의 출현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다. 또, 9간과 백성들이 땅을 파면서 주술 노래를 부른 것은 수로가 땅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으로, 수로 시조전승이 천신계 신앙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거북송배 토렘신앙을 지닌 지신족 관념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흙을 파는 행위를 땅 속에 묻힌 거북의 머리를 내밀도록 하는 주술적 기무라고 보는 것은 본고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김주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236~237쪽.

는 별도의 칭호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3. 제단(祭壇) 형성 행위로서의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그렇다면,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례 의례적 행위를 표현한 것일까?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장례의례적 행위와 관련지어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찰토(撮土)’에 관한 해석과 제주도의 장례 풍속인 ‘제절(祭折)’을 들 수 있다.

우선,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해석에 대해 어강석(2015)과 박재민(2018)은 여러 문헌에서 ‘찰토(撮土)’가 야외에서 제의를 행하기 위해 소규모의 흙을 모으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제의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sup>24)</sup>

두 도둑의 시신을 묻어 분묘 하나를 만들었다. 삼장이 말하기를, “오공아! 향과 초를 좀 가져오너라. 내가 축원을 하여 염불을 해줄 것이다” 하니, 행자가 입을 삐죽이며 말하기를, “너무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 산속에 앞에도 마을이 없고 뒤에도 가게가 없는데 어디 가서 향과 초를 구해 오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삼장이 크게 한탄을 하며 말하기를, “원숭이놈 저리가거라. 내가 흙을 모아 분향(撮土焚香)을 하고 축원하리라” 하였다.<sup>25)</sup>

24) 어강석(2015)은 “찰토(撮土)”는 제례를 올릴 때 반드시 필요한 향을 피우는 화톳불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흙을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보았고, 박재민(2018)은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대규모의 흙을 쌓는 행위가 아닌, ‘향로를 대용할, 향로 크기의 한줌 흙더미를 모으는 행위’라고 밝혔다. 어강석(2015), 앞의 논문, 274쪽; 박재민(2018), 앞의 논문, 141쪽.

25) 把兩個賊埋死了，盤作一個墳堆。三藏叫，“悟空，取香燭來，待我禱祝，好念經。”行者努著嘴道，“好不知趣，這半山之中，前不巴村，後不著店，那討香燭？就有錢也無處去買。”藏恨恨的道，“猴頭過去，等我撮土焚香禱告。”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第56回; 어강석(2015), 앞의 논문, 274쪽 재인용.

경량은 붓을 잡아 벽 위에 4구의 시를 지었다. 그리고 흙을 모아 향으로 삼아(撮土爲香) 하늘을 바라보아 네 번의 절을 했다. “가련하다 천금의 규수여, 남가일봉의 사람이 되도다.”<sup>26)</sup>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촬토(撮土)’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향을 피울 혹은 향로를 대신할 흙더미를 모으는 행위라면, 향이나 향로가 놓일 수 있는 공간, 즉 제단(祭壇)을 만드는 행위로 보아야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촬토분향(撮土焚香)’, ‘촬토위향(撮土爲香)’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향을 피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의를 위한 대상신과 제의 장소로서의 제단(祭壇)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향로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감안하면 ‘촬토(撮土)’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향로를 만들어 올리는 제의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단(祭壇)의 ‘단(壇)’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절(折, 砌)’의 용례는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단을 쌓는 의례적 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단(壇)’과 ‘절(折)’은 의미가 유사하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구체적 의미가 달라진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법(祭法)〉에서 정현(鄭玄)의 주(註)에서는 “단(壇)과 절(折)은 흙을 높이 쌓아 올려서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든 것이다. 단(壇)이란 것은 탄(坦)의 뜻이니, 탄은 밝은 모양이며, 절(折)은 소석(炤皙)의 뜻이다”라고 하여 단(壇)과 절(折)의 구체적 의미와 쓰임이 다름을 밝혔다.<sup>27)</sup> 오늘날에도 ‘단(壇)’은 마

26) 京娘取筆題詩四句于壁上 撮土爲香, 望空中拜了四拜 … “可憐閨秀千金女 化作南柯一夢人” 풍몽룡(馮夢龍, 1574~1646), 『경세통언(警世通言)』 〈제21권〉; 박재민(2018), 앞의 논문, 136~137쪽 재인용.

27)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卷8, 「禮記臆」 2, 〈祭法〉. “燔柴於泰壇, 祭天也, 瘞埋於泰折, 祭地也. 鄭注壇折封土爲祭處也. 壇之言, 坦也, 坦, 明兒也, 折, 炤皙也.”; 어강석(2015), 앞의 논문, 273쪽 재인용.



니산의 ‘참성단(塹星壇)’, 지리산의 ‘노고단(老姑壇)’, 한라산의 ‘산천단(山川壇)’과 같이 천상적 존재에 대한 의례를 행할 때 쓰이는 제단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절(折)’은 그 사례가 많지 않으나 무덤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절(祭砌)<sup>28)</sup>: ①무덤 앞에 평평하게 닦아 만든 땅 ②자손들이 늘어서서 절할 수 있도록 산소 앞에 마련된 평평하고 널찍한 부분.

제절(祭折)<sup>29)</sup>: 무덤 앞에 조금 높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

‘제절’의 용례에서 ‘절’의 의미로 쓰인 한자어는 ‘砌’와 ‘折’로 다르지만, 모두 ‘절’로 읽히고 있다. 또 그 의미는 어느 것이나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특정한 장소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제주도에서 ‘제절(祭折)’은 무덤 앞에 조금 높게 만든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손들이 절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가 아니다. 더구나 제주의 무덤 사례에서 보이는 ‘절(折)’은 한 뼘 정도 높이로 매우 낮게 만들어진다. 제주에서의 ‘제절(祭折)’은 묘제(墓祭)를 지낼 때 제물을 진설하는 공간으로 ‘제절(祭折)’ 위에 제물을 놓고 그 앞에서 조상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보면 ‘제절(祭折)’은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례는 한국 본토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풍습에 따른 해석인데,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제절(祭折)’의 개념이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처음에는 제절(祭折)이었던 것이 후대에 제절(祭

28) ‘砌’는 ‘섬뜩 체’로 쓰이나, ‘절’로도 읽힌다. 사전에 제시된 다음의 용례를 참고할 만하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하, 두산동아, 1999, 5500쪽.

“덕만이가 뒷자리를 들고 그들의 뒤를 따라와서는 제절 앞에 퍼 놓아 준다.” 이기영, <봄>/ “짙을 끼고 제절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봉분의 주위를 돌았다.” 심훈, <상록수>/ “통곡을 한 다음에 두 번 절하고 지팡이를 짚어 제절을 물러났다”, 박종화, <금삼의 피>

29) 현영호, 강영봉,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도서출판 각, 2014, 295쪽.

砌)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현(127~200년)은 후한(A.D.25~220년) 시기의 학자였으니 제단을 만드는 과정의 서술인 ‘촬토(撮土)’가 원명(元明)시대로 오면서 변모과정을 거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그렇다면 ‘촬토’는 무덤 앞에서 제를 지내기 위해 흙을 모아 제단을 만드는 행위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는 무덤, 즉 장례의례와 관련된 제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가락국기>에서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는 구지봉 정상에 있는 지석묘(支石墓)에서 제를 지내기 위해 봉우리의 흙을 파고 모아서 제단을 만드는 장례의례적 행위를 뜻하는 셈이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제절(祭折) 풍습은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의 장례의례적 면모를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제주도의 장례는 『주자가례』에 따른다. 유교식 장례가 중심이라는 말이지만 아직도 유교식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심방을 초청하여 무속식 의례로 귀양풀이와 시왕맞이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제주에서는 임종을 하면 망자의 상의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초혼을 한다. 그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비로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준비를 한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승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서 택일하여 입관, 성복, 발인, 매장 과정을 거친다. 가족이 많거나 망인의 운수가 좋지 않을 경우는 택일하는데 장례를 치를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길면 몇 개월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는 시신을 임시로 보관해 두기도 한다. 이를 ‘토롱’이라 하는데 한국본토에서는 초분(草墳)으로 알려져 있는 이중장제에서 가매장을 하는 1차장의 모습이다. 가매장은 실제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두게 되지만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고 봉분을 만들어두기도 한다. 이 봉분은

30) ‘단(壇)’과 ‘절(折)’의 쓰임은 천지(天地), 혹은 신분의 상하(上下) 등으로 나누어 높은 곳은 ‘단(壇)’, 낮은 곳은 ‘절(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완성된 무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용미와 제절을 생략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길면 10년이 되기도 한다.

토롱이 끝나서 택일이 되면 비로소 자식은 성복을 하고 장례를 치른다. 상여꾼들은 관에 넣은 시신을 상여소리를 하며 장지로 옮겨 땅에 매장하고 등글게 봉분을 만든다. 봉분을 만들 흙은 주변에서 좋은 흙을 선택한다. 이 흙을 팔 때는 진토굿소리를 하고, 이 흙을 옮겨와 다지며 무덤을 만들 때는 달구소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시신을 옮기면서부터 과정마다 노래를 하는데 상여소리이든, 진토굿소리이든 달구소리이든 모든 노래의 내용은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망자가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비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시신의 매장이 끝나면 망자의 영혼을 위무(慰撫)하며 마지막 이별을 위한 우제(虞祭)를 지내기 위해 용미(龍尾)와 제절(祭折)<sup>31)</sup>을 만든다. 한국본토 무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제주에서는 흔한 풍습이다. 용미는 무덤을 만든 후 망자의 무덤 머리 쪽으로 흙을 모아 도톰하게 쌓는다. 무덤과 함께 보면 마치 거북이의 꼬리 형상인데, 거북이 아닌 용의 꼬리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sup>32)</sup> 다음 발쪽으로도 흙을 모아 쌓는데 이를 속칭 제절(祭折)이라 한다. 제절은 묘제를 지낼 때 향과 제물을 놓는 제단(祭壇)이 된다.

무덤을 만들 때 무덤과 용미, 제절을 만드는 행위는 각기 전혀 다른 의례이다. 무덤을 만드는 것도 택일(擇日)하여 정하고, 용미와 제절을 만드는 것도 택일하여 작업하는 것은 물론이다. 택일하여 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독자적인 의례로 행해지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제절은 봉분의 머리에서 발까지의 길이가 아닌 발을 중심한 좌우 넓이에 맞게 하고 높이는 땅에

31) 제주의 제절에 관한 기록 중 『제주유맥육백년사』에 따르면 階節로 표기하기도 한다.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제주유맥육백년사』, 학문사, 1997, 590쪽.

32) 한국본토의 무덤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있다. 용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뒤는 부처님 광배처럼 둘러쳐 있는 점이 제주와 다르다.

서 한 뼘 정도의 높이로 흙을 모아 쌓아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다. 평지보다 약간 높게 하여 평지가 아님을 알리는 정도이다. 높이가 낮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 평지와 같아지기도 한다. 이를 고치고 보완하려면 청명(淸明) 기간 동안에 일을 한다. 계절이 완성되면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우제(虞祭)가 망인의 영혼을 위안하는 의식이니 용미와 계절을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자와의 이별이 완성된다고 인식하고 우제를 지내고 있다. 이때부터 망자는 조상신이 된다. 그 절차는 『주자가례』의 상례 절차와 동일하다. 임종, 초혼, 염습, 입관, 성복, 일포, 발인, 노전제, 토신제, 하관제, 성분, 초우, 귀양풀이, 재우, 삼우, 졸곡, 삭망, 소상, 대상, 시왕맞이, 담제의 과정을 거치는데,<sup>33)</sup> 제주의 특징으로는 일포,<sup>34)</sup> 귀양풀이, 시왕맞이가 있다는 것이다.<sup>35)</sup>

제주도 무속의례인 시왕맞이는 망자를 매장하고 난 후,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갈 수 있게 기원하는 의례이다. 시왕맞이를 하려면 택일하여

33) 반 겐넵(Van Gennep)의 의례 구분에 따르면, 임종(臨終)부터 담제(禫祭)까지 의례 과정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떨어지는 분리기(分離期), 그 영혼이 저승으로 여행하는 과도기(過渡期), 저승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입기(加入期)의 3단계로 구성된다. 분리 의례로는 ‘임종(臨終)~입관(入棺)’, 과도의례로는 ‘성복(成服)~대상(大祥)’과 시왕맞이, 가입의례는 ‘담제(禫祭)~묘제(墓祭)’와 ‘지제(地祭)’로 구분된다. Van Gennep,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현승환,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171~191쪽.

34) 일포는 망자가 이승을 떠나기 전 가족 친지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지내는 의미가 있다.

35) 제주의 무속신화는 ‘00풀이’라는 신화의례와 ‘00맞이’라는 영신(迎神)의례, ‘00놀이’라는 성극의례 등으로 나뉜다. 귀양풀이는 장사 지낸 날 밤에 굿을 하는데, 죽은 영혼을 불러 영혼의 생전의 心懷 또는 죽을 때의 마음, 저승으로 가면서의 심정 등 여러 가지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빙의한 심방의 입을 빌어 전하는 것이 중심이며 차사본풀이를 노래하며 영혼을 잘 데려가 달라고 빈다. 시왕맞이는 죽은 사령을 관장하는 저승시왕을 맞이하여 사령의 생시 업보를 사하여 극락으로 보내달라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시왕(十王)은 인간들의 定命을 미리 정하여 그들의 명부에 기재하여 놓고 定命이 다 되면 差使를 시켜 잡아오게 한다.

신성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한다. 그래서 저승 시왕을 불러 망자의 영혼을 부탁하고 위무한다. 심방<sup>36)</sup>은 후손의 이러한 기원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감점을 통해 확인하고 후손들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후손들은 망자의 상태를 알게 되니 망자를 잃은 아픔도 덜어진다. 태초의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강림차사의 능력이 신비하니 망자의 영혼을 잘 돌봐달라는 것이 의례 진행 의미이다. 그 결과 심방은 망자의 영혼을 자신에게 빙의한 후 영개울림<sup>37)</sup>을 하면서 직접 후손들에게 망자의 목소리로 전달해 준다. 이 과정은 태초의 시간과 장소에서 천신에게 전임자의 자리를 이을 수로를 내어달라 9간이 기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결과 6란은 하강하여 동자로 변신한다.

다만 시왕맞이는 망자를 위한 의례요, 〈가락국기〉는 새로운 생명인 수로의 탄생을 위한 의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의 장례와 ‘굴봉정찰토’의 장례에서 구별되는 점은 하나는 망자의 영혼을 위하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바란다는 점이다. 하지만 망자의 장례가 3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죽음과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 완전히 구분된 의례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무속의 계세사상(繼世思想)에서도 새로운 인물의 탄생은 연속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본다.

36) 한국본토에서는 무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주에서는 심방이라 하는데, 이는 15세기 『월인석보』와 『능엄경언해』에 등장하는 언어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월인석보』 제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99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능엄경언해』 제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7, 139~140쪽;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명두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71쪽 재인용.

37) 시왕맞이나 귀양풀이를 할 때 심방이 죽은 영혼을 빙의하여 생전의 심회, 죽어갈 때의 서러움, 저승에서의 생활, 근친들에게 부탁의 말들을 읊면서 하는 말이다. 영계는 영혼의 뜻이고 울림은 울음의 뜻이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을유문화사, 1980 참조.

#### 4.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재생 기원적 의미

‘굴봉정찰토’가 장례 의례에서 무덤 앞에 제단을 만드는 행위라면, ‘굴봉정찰토’와 <구지가>의 관련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수집된 민속 자료 중 고대 장례법과 관련하여 ‘굴봉정찰토’와 <구지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는 진도 <다시래기>이다. <다시래기>는 마을에 초상이 나면 동리 상두꾼들이 상제(喪制)를 위로하기 위하여 <다시래기> 연희자들을 초청하여 상두꾼들과 밤을 세워 놀이를 하는 상여놀이로 민속가무극이며 연극성이 가장 좋다. 이는 장례 때 가무를 행하던 풍습이 삼국시대부터 있어 온 기록과 관련된다. 장례에 앞서 가무를 하는 풍습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있었고,<sup>38)</sup> 특히 가무는 죽은 자가 돌아오기를 꾀하거나 혹은 장송의례로 쓰였는데, 유교적 상례법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존재해 온 오랜 습속이다.<sup>39)</sup>

이런 점에서 장례의례에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한 후 <구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대에 전승되던 가무(歌舞)의례적 장례 풍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장례의례의 한 과정이라면, 한 사람을 매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탄생을 기원하는 재생적 의미를 지닌 의례 행위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진도의 장례 풍속인 <다시래기>의 절차와 의미를 통해 ‘굴봉정찰토’의 의례적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우선, 진도의 장례 풍속인 <다시래기>의 절차와 내용을 살피기로 한다. 시신을 다루는 민속인 진도의 <다시래기>는 고대인들의 장례법이 지닌 심

38)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 13년 김유신을 장사지낼 때 군락고취(軍樂鼓吹) 백명을 내어 연주하게 하여 금산원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07~208쪽.

39) 황해도 용진군 출신의 김금화 무녀는 초상이 났을 때 ‘생여뜯음(상여뜯음)’을 놀았는데 이러한 상여놀이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에 보이며 그 대표적 인 것이 진도의 다시래기이다. 이두현(1996), 위의 책, 207~208쪽.

충적 의미를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래기〉는 이중장제의 풍습이다. 고대로부터 시신을 모시는 과정은 조상 공경의 한 방편이다.<sup>40)</sup> 지석묘 장법에서 시신은 복장제(複葬制)라는 이중장법으로 다룬다. 이중장제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두 번 치르는 것이다. 1차장은 가장(假葬)으로 시체가 완전히 썩어 탈육할 때까지 임시로 시신을 보관하는 장례법이고, 2차장은 탈육된 뼈를 모아 깨끗이 씻어 본장을 치르는 장법이다. 1차장을 치르고 난 후 뼈를 골호에 넣어 2차장을 치르기도 하고, 화장하여 2차장을 치르기도 한다. 또는 뼈를 깨끗이 씻어 관에 넣는 세골장을 치르기도 한다.<sup>41)</sup> 어느 것이나 뼈를 소중히 하여 2차장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물론이다.

세골장(洗骨葬)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섬 지역에 일부 남아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골장을 초분(草墳)이라고 하여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로 초빈(草殯), 고빈(藁殯), 출빈(出殯), 외빈(外賓)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sup>42)</sup> 민족지적으로 세골전 장법(洗骨前葬法)은 토장(土葬), 화장(火葬), 수장(樹葬), 평대장(平臺葬), 실내장(室內葬), 암동장(岩洞葬) 등으로 분류되는데,<sup>43)</sup> 지석묘(支石墓)의 자료에서는 세골 후 화장 흔적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sup>44)</sup>. 지석묘 장법이 행해지면서 많은 변모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법이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옥저전(東沃沮傳)

40) A.W.Malefijt는 『종교와 문화(Religion and Culture)』에서 사자의례(cult of the dead)와 조상숭배(ancestor worship)로 구분하고, 사자의례는 시신을 무서워하고 사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조상숭배는 시신을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 사자를 신의 존재로 전환시키고 이를 조상으로 대접하며 그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7, 40쪽 재인용.

41) 송화섭, 「삼한사회의 종교의례」,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1997, 73~74쪽.

4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국립민속박물관, 2003, 203쪽.

43) 凌純聲, 「東南亞의 洗骨葬及其環太平洋의 分布」, 『中國民族學報』 第一期 所收, 臺北 中國民族學會, 1955, 30면; 이두현, 「장제와 관련된 무속연구-특히 초분과 씻김굿에 대하여」, 『문화인류학』 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8쪽 재인용.

44) 박태호, 「장제의 역사」, 도서출판서해문집, 2006, 34쪽.

에서는 죽은 사람을 가매장했다가 그 뼈만 추려서 길이가 10장에 이르는 큰 나무덧널에 다시 안치하는 방식이 보이고,<sup>45)</sup> 『수서(隋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도 사람이 죽으면 살내에 3년 정도 두었다가 택일하여 장례를 치른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6)</sup> 이것으로 보아 지식묘에서 행하는 세골장은 상당히 오랜 장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장제인 이중장제는 어떤 세계관에 따른 결과일까? 지식묘사회의 장례의식과 관련하는 자료로는 양평 양덕리 지식묘 유구에서 출토된 붉은 흙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자의 영혼 영생 또는 영혼 숭배를 기리는 영생과 재생의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7)</sup> 다음 농경의례와 관련해서는 지식묘 덮개돌의 윗면에 조각된 바위구멍을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가진 성혈(性穴:cup-mark)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sup>48)</sup> 덮개돌은 지식묘를 축조하는 장례에서 장례식의 마지막 단계로 덮개돌을 덮으면서 영혼 불멸의식의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즉 피장자(被葬者)의 영혼의 재생, 그것의 부활을 기원하는 조상숭배의 수단으로 바위구멍을 조각한 것이라 본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영혼의 죽음과 재생은 곡물을 영적 존재로 의인화하여 사람의 영혼과 곡물의 영혼을 동일시하는 신관념으로 해석한다.<sup>49)</sup> 따라서 사자(死者)의 장례는 죽어 있던 곡식이 새롭게 삶을 찾는 농경의 풍요제와 의례적 일치를 보였을 것이다.<sup>50)</sup> 이처럼 농경의 풍요 기원은 증가하

45) 『三國志』 魏志 東夷傳 東沃沮傳,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舉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46) 『隋書』 高句麗傳,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47) 이용조, 「양평 양덕리 지식묘 발굴보고」, 『한국사연구』 11, 한국사연구회, 1975, 55~99쪽.

48) 황용훈, 「양주 금남리 지식묘 조사보고」, 『경희사학』 3, 경희사학회, 1972, 97~106쪽.

49) 송화섭, 「삼한사회의 종교의례」,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1997, 74쪽.

50) Elliade, M., 이재실 역, 『종교사개론』, 까치, 1993, 331~333쪽.



는 인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신앙은 영혼승배와 곡령승배를 동일시하면서 재생의례와 농경의례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석묘가 물가에 위치한 점과 석실(石室) 구조로 보아 지석묘 장례법은 세골장으로 치러진 재생, 부활의 장례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세골장이라는 2차 장법도 재생의례라는 점에서 지석묘 축조는 장례의례이며 농경의례적 의미를 동반하였을 것으로 본다.<sup>51)</sup>

〈다시래기〉 놀이는 비통해 있는 상제를 위안하기 위하여 초상집에서 밤에 노는 것이므로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상제를 위한 놀이인 듯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제가 망자(亡者)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망자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 의미가 강한 놀이이다. 진도의 향토 사학자 허옥인은 ‘다시래기 놀이는 초분을 하고 씻골을 한 다음 본장을 하기 전날 밤에 놀았다’고 하였다.<sup>52)</sup> 이는 1차장을 치르고 2~3년 가량 시간이 지난 후 본장인 2차장을 치르는데, 2차장 이전에 〈다시래기〉 놀이를 하는 것이다.<sup>53)</sup> 장례 의례의 절차는 ‘초분(草墳)—(2~3년 후)—〈다시래기〉—본장(本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생자(生者)와의 이별을 위한 본장을 치르기 전에 망자(亡子)를 즐겁게 하는 놀이로 〈다시래기〉를 행하고 있다. 초분은 망자의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가장(假葬)이다. 탈육(脫肉)하고 난 후 뼈를 모아 본장을 치르면서 행하는 놀이로, 그 의미는 재생(再生)으로서의 ‘다시 나기(出)’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出)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자, 다시 나오기까지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sup>54)</sup> 또, 〈다시래기〉는 흥미 위주의 즉흥적 놀이라 생각할

51) 방선주, 「한국거석제의 제문제」, 『사학연구』 20, 한국사학회, 1968, 67쪽; 송화섭, 위의 글, 74쪽 재인용.

52) 허옥인, 『義新面 郷土誌』, 진도:의신면노인회, 2005, 341쪽.

53) 박중오, 「송이도의 초분 고찰—얕은 초분의 형태와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314쪽.

54) 안철상, 「인도네시아 바라(Bara)족, 중국 흰 바지 야오족(瑤族)의 장례에서의 성격

수 있겠으나 실제 <다시래기>는 세습 무당들이 사자(死者)를 위해 행하는 의례로서, 진혼의례이자 재생 기원의례로서의 속성이 강하다.<sup>55)</sup> <다시래기>의 절차와 내용에서 이러한 의미가 확인된다.<sup>56)</sup>

- 1) 첫째마당(가상제놀이) : 상제는 문상객을 맞이하며 제청에 앉아 있다. 다시래기 패들이 상여를 메고 들어와 담에 세워놓고 망자의 영전에 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놀이패의 한 사람인 가상제는 상두꾼들 틈에 끼어 들어와 제상 음식을 마구 내려 먹으며 슬피하는 상제를 웃기려는 놀이를 시작한다. (놀이패가 세습무당임을 전제로 볼 때, 이미 봉사, 사당, 중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미리 각각의 위치에 들어가 있다)
- 2) 둘째 마당(거사사당놀이) :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사를 두고 아내인 사당과 중이 거사 몰래 사랑을 나눠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다.
- 3) 셋째 마당(상여놀이) : 망자가 타고 갈 상여 틀을 제청에 가져와 상두꾼이 어깨에 메고 가상제(거짓상주)는 상여에 올라가 사물악기에 맞추어 춤을 추며 망자가 저승길로 가는 내용의 상여소리를 매긴다.
- 4) 넷째 마당(가래소리) : 마당에서 출상에 쓸 상여를 마당굿판에 놓고, <묘를 쓰며 흙을 파는 시늬와 함께 달구질하는 소리>를 한다.
- 5) 다섯째 마당(여흥놀이) : 여흥놀이는 다시래기 놀이패의 개인적인 특기를 보여주는 놀이마당이다

---

(性的) 제의와 진도 다시래기의 아기 낳기 놀이의 비교,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2009, 174쪽.

55) 이두현과 정병호의 문화재본 <진도다시래기>(『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제161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7집, 문화재관리국, 1985), 최덕원이 발굴한 신안의 <밤달애본 다시래기>(『남도민속고』, 삼성출판사, 1990, 458~483쪽), 진도 향토 사학자 허인옥이 채록한 <김양은 구술본 待時래기 각본>(의신면민속보존회, 1989, 필사본) 등이 그것이다. 이두현, 앞의 책, 208쪽.

56) 오임숙, 「출상 전야 상가에서 행해지는 장례놀이」, 『문물연구』 31, 동아시아문물연구소, 2017, 81~82쪽.

특히 〈다시래기〉 다섯 마당 중 둘째마당인 거사와 사당놀이에서는 거사, 처, 중의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거사처가 애를 낳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사당이 아이를 낳고, 중과 거사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데, 이 부분이 〈다시래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관객의 관심은 망인보다 새로 탄생한 아이에게 집중한다. 이는 삶과 죽음이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때문에 〈다시래기〉는 ‘다시 낳는다, 다시 생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57)</sup> 셋째 마당에서는 망자의 저승행을 엿볼 수 있고, 넷째마당 가래놀이는 무덤을 만들고 가래질을 하는 가매장(假埋葬) 의식을 연출한 내용이다.

〈다시래기〉 놀이에서 상제(喪制)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은 관객이 된다. 망자의 죽음을 위무(慰撫)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아기를 낳아 상제(喪制)에게 전달하는 〈다시래기〉 의례를 통해 망자의 죽음은 단절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는 재생신앙의 반영으로 우리 민족과 같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닌 민족들이 지닌 보편적 사상이다.<sup>58)</sup> 이러한 사상에서는 이승에서의 죽음이 저승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므로, 〈다시래기〉는 죽음과 탄생을 지속적 과정으로 인식시키는 진혼의례이자 재생 기원의 모의행위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가락국기〉는 구지봉에서 전임 통치자의 장례의례인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구지가〉를 부르면서 수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의례 행위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탄생의례는 수로 이전 시기부터 토착세력인 9간과 백성들이 행하던 고유한 의례방식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고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로 집전된 제의의 의

57) 이상범, 「한국 장속에 나타난 연극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45쪽.

58)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171~187쪽 참조

미가 지속적 필요성에 의해 다음 왕으로 전승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바로 가락국의 성립기(A.D. 42년), 즉 수로왕의 등극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천명사상(天命思想)의 발달로 왕권의 정통성 정립을 위한 제천의식(祭天儀式)이 국가제의로 행해지던 시기로<sup>59)</sup>, <가락국기>의 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왕인 수로의 기원, 탄강, 등극의례가 구지봉이라는 신성장소에서 구간과 백성들에 의해 진행되는 모습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 문무왕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개황록(開皇錄)』<sup>60)</sup>을 참고할 때, 수로 후손들은 수로왕릉을 시조묘(始祖廟), 국조묘(國朝墓)로 삼아 제사를 지내면서 시조의 신성성을 강화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조묘에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의례를 행하면서 후대 왕으로 왕권의 신성성이 전승되기를 기원하는 의례를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는 전임 왕의 죽음과 관련된 장례의례에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의례로서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무덤 앞에 제단을 만들고, 새로운 후임자의 탄생을 기원하는 장례의례적 행위임을 밝혔다.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행위와 함께 <구지가>를 부르

59) 오태권(2007), 앞의 논문, 531쪽.

60) <가락국기>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일연이 <가락국기>를 찬술(撰述)하는 데는 고려 문종 조의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가 지은 『개황력(開皇曆)』 또는 『개황록(開皇錄)』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 文廟朝, 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 開皇錄云 梁中大通四年壬子 降于新羅 … 開皇曆云 姓金氏 蓋國世祖 從金卵而生 故以金爲姓爾. 『三國遺事』 <駕洛國記>.

는 모습은 전임 왕의 죽음을 위무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재생 기원적 속성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구지가〉가 수로왕이 등극하던 시대와 수로를 이은 후대 왕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전승되었으나, 그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고 본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구지가〉의 주인공은 가야의 건국주인 수로(首露)이다. 정상적인 왕위 전승과정이라면 전임 통치자가 죽고 그 통치자의 후손이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탄생하는 인물인 수로(首露)는 전임 통치자의 후계자가 아니라 부족사회를 통합하여 국가체제로 이행하는 시기에 출현한 새로운 시대의 왕이다. 그래서 처음을 의미하는 ‘수로(首露)’라는 특정 이름이 〈구지가〉에 제시된다. 수로가 죽은 이후에는 후계자인 2대 거등왕이 수로의 장례를 치르면서 신임 왕의 탄생의례를 행하게 되고, 3대 마품왕과 이후의 후대 왕들에게도 의례는 전승된다. 이때에도 ‘굴봉정찰토’와 〈구지가〉 연행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로왕의 시대와 후대 왕의 시기에 전승되는 〈구지가〉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수로왕의 시대에 불린 〈구지가〉에서 거북이에게 내어놓으라는 ‘머리’ 즉 ‘수로(首露)’는 곧 수로왕(首露王)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로를 이은 후대 왕의 시대에 불린 〈구지가〉에서 ‘수로’는 수로왕이 아닌 수로왕을 이을 새로운 최고 권력자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야가 존속 되던 9대왕까지 왕위를 계승할 때마다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구지가〉 연행이 의례로 전승되었기에 가야 패망 이후에 기록된 〈가락국기〉에 기재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가락국기〉의 서사 중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를 장례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와 함께 노래 불린 〈구지가〉에 관해서는 새로운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재생적 의미만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지가〉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연구에서 보강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자료〉

『三國志』

『隋書』

『三國史記』

고전연구실 역, 『삼국유사』, 신서원, 2004. 1~448쪽.

박성봉·고경식 공역, 『譯解 三國遺事』, 서문문화사, 1985.

이병도,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1962.

〈논저〉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91쪽.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총 7308쪽.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국립민속박물관, 2003, 1~231쪽.

김병국, 「고대인들의 황천(皇天) 인식과 소망 성취 방식-〈구지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0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9, 39~61쪽.

김승찬, 「구지가와 그 배경의 연구」, 『문리과대학논문집』 14, 인문사회과학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75, 21~40쪽.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선명문화사, 1974, 1~368쪽.

김주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1~385쪽.

김태식, 「가야의 문화와 역사」, 『시안』 12(1), 시안사, 2009, 12~24쪽.

박성의, 『國文學通論 國文學史』, 삼우사, 1976, 1~429쪽.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1~325쪽.

박재민,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행위로 본 〈구지가〉의 성격에 대한 재고」,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27~144쪽.

박종오, 「송이도의 초분 고찰-얇은 초분의 형태와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303~332쪽.

박지홍, 「구지가연구」,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3~17쪽.

박진태, 「구지가 신연구」, 『한국어문논집』 2,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119~131쪽.

박태호, 『장례의 역사』, 도서출판 서해문, 2006, 1~204쪽.

방선주, 「한국거석제의 제문제」, 『사학연구』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20, 한국

- 사학회, 1968, 11~86쪽.
- 배성혁,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가야고분군 V-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0, 152~184쪽.
- 송화섭, 「삼한사회의 종교의례」,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1997, 55~92쪽.
- 안철상, 「인도네시아 바라(Bara)족, 중국 흰 바지 야오족(瑤族)의 장례에서의 성적(性的) 제의와 진도 다시래기의 아기 낳기 놀이의 비교」,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2009, 165~203쪽.
- 오탈권, 「구지가 서사의 봉제기능연구」,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521~558쪽.
- 여강석, 「한문학적 관점으로 본 〈구지가〉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47~280쪽.
- 오임숙, 「출상 전야 상가에서 행해지는 장례놀이」, 『문물연구』 31, 동아문화재단, 2017, 73~97쪽.
- 이두현, 「장제와 관련된 무속연구-특히 초분과 셋김굿에 대하여」, 『문화인류학』 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7~38쪽.
-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476쪽.
- 이상돈, 「쉽게 풀어본 龜旨歌詞의 해석」, 『인문언어』 13(1), 국제언어인문학회, 2011, 53~91쪽.
- 이상범, 「한국 장속에 나타난 연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6, 1~114쪽.
- 이용조, 「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한국사연구』 11, 한국사연구회, 1975, 55~99쪽.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7, 1~296쪽.
-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제주유맥육백년사』, 학문사, 1997, 1~1221쪽.
- 조용호, 「풍요기원 노래로서의 구지가 연구」, 『서강인문논총』 2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323~368쪽.
- 조윤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1~120쪽.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97, 1~568쪽.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을유문화사, 1980, 1~969쪽.
- 황경숙, 「駕洛國記의 山上儀禮와 龜旨歌의 性格에 대한 小考」,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994, 17~45쪽.
- 황용훈, 「양주 금남리 지식묘 조사보고」, 『경희사학』 3, 경희사학회, 1972, 97~106쪽.

황패강, 「龜何歌攷」, 『국어국문학』 29, 1965, 21~48쪽.

황패강, 「김수로왕신화와 구지가」,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136~180쪽.

Elliade, M., 이재실 역, 『종교사개론』, 까치, 1993, 1~494쪽.

Van Genep, A.,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1~306쪽.

〈인터넷 자료〉

문화재청 보도자료(2019.03.20.),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신화 그림 6종’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6p1uOkSxP5ukFAmbjJaJdnpkuR7j0MdDVaPy0bAChkaMLwySJ0yyax11iFr1kha8.ch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1283&sectionId=b\\_sec\\_1&pageIndex=130&mn=NS\\_01\\_02&strWhere=&strValue=&state=&date=\(2022.03.29.\)](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6p1uOkSxP5ukFAmbjJaJdnpkuR7j0MdDVaPy0bAChkaMLwySJ0yyax11iFr1kha8.ch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1283&sectionId=b_sec_1&pageIndex=130&mn=NS_01_02&strWhere=&strValue=&state=&date=(2022.03.29.))

대동문화재연구원 (2019.03.20.), ‘김수로왕 탄생 신화’ 〈구지가〉 논란 불러올  
방울 출토,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6599.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6599.html)  
(2022.03.29.)

JTBC 뉴스 보도자료(2019. 3. 20.), ‘구지가’ 연상시키는 1500년 전 방울…가야의  
신비 풀리나,

<https://www.youtube.com/watch?v=szF4grge3BU> (2022.03.29.)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042> (2022.04.01.)



ABSTRACT

A Study of the Funeral Rites Characteristics of  
“Gulbongjeongchwalto” in “Garakgukgi”

Hyeon, Seung-hwan & Byeon, Sook-ja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 funeral rites of “Gulbongjeongchwalto” presented in the story “Garakgukgi” from the *Samgukusa*. “Garakgukgi” is the mythical story of the birth of the ‘Su-ro’. Since myths are transmitted along with rituals,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myths of aqueducts can be understood concretely only when the ritualistic aspects appearing in the myths of aqueducts are clearly identified.

In “Garakgukgi,” the portion pertaining to the birth of “Su-ro” is subdivided into two parts: before and after the birth of Su-ro. The birth of Su-ro signifies the emergence of a new king, while simultaneously signifying the death of the former ruler. In other words, the birth of Su-ro in “Garakgukgi” contains two events: the rite for the birth of a new king and the funeral rites of the former ruler. This is also illustrated through the placement of the tomb of the ancient ruler, “Jiseokmyo,” above that of “Gujibong,” and the rite for the birth of a Su-ro being performed on Gujibong.

In this study, folklore materials handed down until today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eral rites of “Gulbongjeongchwalto.” First,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stom of “Jejeol” and “Gulbongjeongchwalto” among the funeral methods handed down in Jeju Island today. Second, we discovered the tradition of singing and dancing to pray for the birth of a new life in the funeral process through the “Dasiraegi”, a funeral method in Jindo where the ancient funeral method called “double funeral” is handed down. “Gulbongjeongchwalto” and “Gujiga” performances consist of praying for the birth of descendants and the transmission of sacrednes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it would be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Samgukusa*, Garakgukgi, Gujiga, Suro myth, Gulbongjeongchwalto, Jejeol, Dasiraegi, Funeral rites

논문투고일	: 2022.04.04.
심사완료일	: 2022.04.30.
게재확정일	: 2022.05.02.